

□ 세입은 내수활성화에 힘입어 '12년 대비 완만한 증가세 유지 전망
다만, 부동산 경기 회복 불투명으로 안정적 재정운용이 필요

- 지방세 중 지방소비세는 소비회복과 소득향상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
예상되나, 취득세의 경우 경기불투명으로 증감여부 불확실
- 지방교부세는 내수경기 회복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국고보조금은 성과가 미흡하거나 유사·중복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
감소요인과 지속적인 복지수요 증가, 미래투자확대 등 보조금 증가
요인 상존

□ 세출은 사회복지분야 지방비 부담액의 지속적인 증가, 경북형 일자리
창출, 도청이전 추진, 글로벌 경북구현, 신성장동력산업 육성, 새마을
운동 세계화 등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

- 韓 강·산·해를 활용한 경북녹색성장축 마련 및 문화관광자원화,
新성장동력 산업발굴, 지역 SOC투자를 통한 균형개발, FTA대응
농업경쟁력 강화 등 재정수요 지속 증가
-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증가는 재정 부담으로 작용
- 특히, 도청이전 추진, 이스탄불 EXPO, 새마을운동 세계화, 세계
물포럼, 新 실크로드 프로젝트, 경북의 혼찾기 등 새로운 세출수요 증가

□ 따라서 既 추진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구조조정과 행사성·민간이전
경비 등 절감과 동시에 자체수입 증대 노력 병행필요

⇒ **효율적 재정운용으로 재정건전성·안정성 확보에 중점**

☐ 경북형 일자리 창출과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

- 투자유치, 사회적기업 육성, 청년창업 지원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
- 미래 먹고 살거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동력 R&D·인프라 구축, 투자기업 지원 확대

☐ 경북 정체성 확립 및 글로벌 문화경북 구현

- 독립운동테마파크, 유림사관학교, 종가문화 전승사업 등을 통한 경북의 정체성 재정립
- 이스탄불EXPO 개최,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산업 기반강화

☐ 서민·사회적약자 등 다함께 대접받는 따뜻한 경북 구현

- 서민·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 및 일자리 확충
- 저출산, 다문화, 고령화 등 사회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 투자

☐ 농어업 경쟁력 강화로 부자되는 농어촌 건설

- 농민사관학교운영, 농어업 융·복합화 등으로 대외 경쟁력 강화
- 유통구조개선 및 수출지원 확대로 돈버는 고부가가치 농어업 육성

☐ 사통팔달 열린 경북을 위한 SOC사업 지속 확충

- 균형발전을 위한 도청이전 가속화, 도로망 등 SOC 확충
- 재해위험지구 정비, 수해상습지 개선 등 자연재난 대비 투자